



농촌진흥청, 가루쌀 ‘바로미4’ 현장 점검...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에 총력”

-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김제 시범사업 가루쌀 재배단지 찾아 육묘 상황 점검
- ‘바로미4’, 기존 ‘바로미2’보다 관리 수월...고온 육묘·수발아 약점 보완
- 올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신속한 현장 정착 지원

※ 일시 및 장소: 2026. 6. 24.(수) 11:30~13:00 , 전북 김제시 진봉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6월 24일 전북 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의 ‘바로미4’ 신기술 시범사업 단지를 방문해 육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바로미4’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 신품종으로, 기존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의 재배 안정성을 높인 품종이다.

최근 지속된 고온에서도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지 않고, 키와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원장은 ‘바로미4’ 모 뿌리가 모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잘 형성됐는지 등을 살피고, 여름철 고온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적 육묘 관리 기술과 현장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바로미4’는 ‘바로미2’의 재배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온 육묘 시 웃자람과 수발아* 취약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농가의 육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확기 잦은 비 등 기상 변수에도 수발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발아: 수확 전에 비를 맞아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힘.


**수발아율(실내검정)(%): ('바로미2') 64.4 ('바로미4') 18.3 (인위적인 수발아 검정 조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제시에서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바로미4'를 재배하는 최남훈 장인명품 대표는 “'바로미4'를 재배해 보니 기존 '바로미2'보다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해 육묘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라며, “지난해 재배 과정에서 수발아에 강한 특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수확기 걱정은 덜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에서 총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로미4'의 현장 적응성과 재배 안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가루쌀이 쌀 가공산업 원료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상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며, “고온 육묘와 수발아 문제를 보완한 '바로미4' 품종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농가 보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김제 '바로미4' 시범단지 방문 일정표
- 2. '바로미4' 품종 특성
- 3. '바로미4' 신기술시범사업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	책임자	과 장	정지웅 (063-238-5250)
		담당자	연구사	이길응 (063-238-5274)
				

붙임 1 김제 '바로미4' 시범단지 방문 일정표

- 일시 : 2026. 6. 24.(수) 11:30~ 13:00
- 장소 : 전북 김제 장인명품
- 내용 : '바로미4' 시범단지 육묘현장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일정표

시 간		내 용
11:30~12:30	60'	○ '바로미4' 시범단지 육묘 현장 방문 - 시범단지 현황 보고, 육묘 생육 점검
12:30~13:00	30'	○ 단지 대표 간담회 - '바로미4' 품종 평가 의견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단지정보

- 단 지 명 : 장인명품
- 대 표 : 최남훈
- 설립연도 : 2021년 12월(법인)
- 소 재 지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고사1길 15



- ※ 주요 경력 사항
- * 1996년 영농시작
- * 농업마이스터 1호(수도작)
- * 특수미 연구·생산 전문
- *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23~)
- * '바로미2' 재배 및 기술이전('22~)

붙임 2 '바로미4' 품종 특성

□ 주요 특성

- 교배조합 : 온누리/바로미2
- 이모작·만기재배용, 건식제분 전용
- 수발아 강, 고온육묘 안정성, 복합내병충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 적응지역

-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생육 및 수량 관련 특성

- 벼키가 '바로미2'보다 11cm 짧아 쓰러짐에 강함
- 쌀수량은 470kg/10a로 기존 '바로미2'보다 10% 정도 많음

품종명	출수기 (월·일)	벼 키 (cm)	이삭길이 (cm)	이삭수 (개)	벼 알수 (개)	현미 천립중(g)	쌀수량 ^z (kg/10a)
바로미4	8.26	69	22	13	95	18.2	470
바로미2	8.27	80	24	12	123	18.9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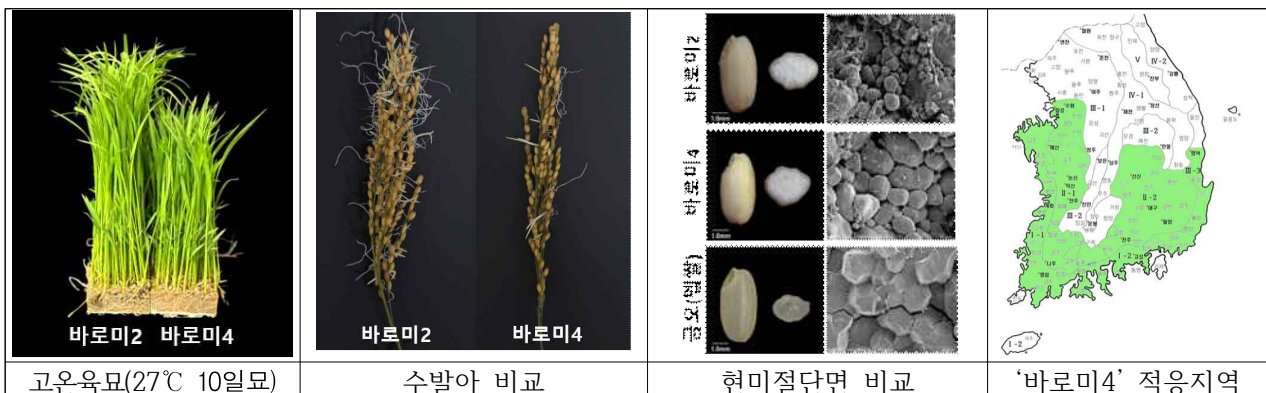
^z 쌀수량은 '24~'25 이모작 성적

□ 수발아율 및 고온육묘 특성

- '바로미4' 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의 1/3 수준으로 낮음
- 고온 조건에서 웃자람이 덜하고, 성묘율이 72%로 '바로미2'보다 높음

품종명	수발아율(%)		고온육묘(27°C, 10일묘)	
	실내검정	포장수발아율	초장 (cm)	성묘율 (%)
바로미4	18.3	0.2~0.9	13.4	72.0
바로미2	64.4	4.5~8.2	18.4	63.7

□ 사진자료



붙임 3 '바로미4' 신기술시범사업

□ 개요

- 사업명 : 가루쌀 내수발아성 품종 대체 단지 조성
- 목 적 : 수발아 개선 '바로미4' 품종의 안정적인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수급 안정 및 밀가루 대체 원료곡 생산 기반 구축
- 규 모 : 전국 5개소 100ha(개소당 20ha)



도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예산	김제	진도	김천	산청

□ 기대효과

- '바로미4'의 대규모 현장 재배를 통한 내수발아성, 수량성 등 주요 특성 검증
-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재배 기반 확보 및 안정적 농가 보급 기반 마련
- 가루쌀 재배 안정성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정책 추진 안정성 제고